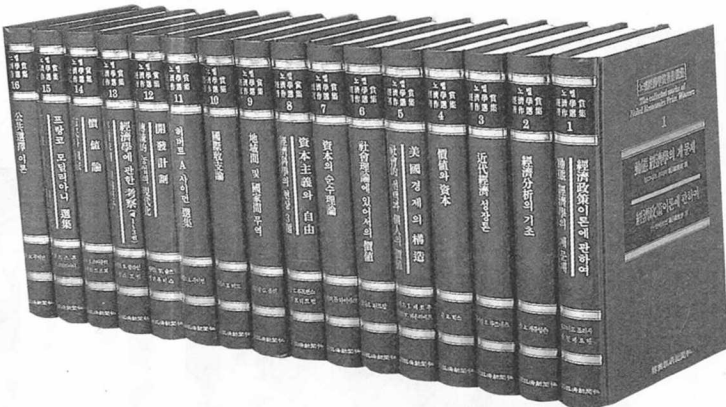


현대 경제학의 主流 집대성

「노벨 經濟學 賞著作選集」전 16권 완간



「노벨 經濟學 賞 著作選集」전 16권이 한국 경제신문사에 의해 기획, 3년만에 완간되었다. 이 선집은 1969년 제1회 노벨경제학상 수상 이래 1986년까지 역대수상자 23명의 대표적인 논저를 수상년도순으로 망라하고 있다. 다만 75년도 수상자인 소련의 레오나드 칸트로비치는 그의 저서와 적당한 역자를 구할 수가 없어 제외되었다.

이들 수상자들의 저서는 과거에도 개별적으로 상당수가 출판되었으나 일본책의 번역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원저서를 입수, 번역한 이 선집의 출판은 경제학 전공 학자나 학생들 뿐만 아니라 기업인, 일반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이론의 흐름 총망라해

노벨경제학상은 사회과학 분야에 주어지는 유일한 상으로 69년 이후 해마다 경제이론 발전에 공헌한 학자를 선별해 수여하고 있다. 이들의 학문적 업적은 곧 경제이론의 발전으로 이어지는데, 이 선집은 이러한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꾸며졌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1권은 '경제과정 분석에 필요한 동태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현실 경제문제 해결에 적용한 공로'로 제1회 경제학상을 수상한 랑나르 프리시와 얀 틸베르헨의 저서 및 논문을 묶었다.

제2권은 폴 A. 새뮤얼슨(제2회)의 저서 「경제분석의 기초」(1947), 제3권은 사이먼 S. 쿠즈네츠(제3회)의 대표작인 「근대 경제성장론」을 번역하여 실었다. 이중 쿠즈네츠의 저서는 200년에 걸친 각국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수록한 책이라고 박규교수는 역사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제4권은 존 R. 히스(제4회)의 「가치와 자본」(1946)을, 제5권은 4, 5회 수상자인 케네드 J. 애로우의 「사회적 선택과 개인의 가치」, 와실리 W. 레온티에프의 「미국경제의 구조」 등 주요 저서와 논문들을 실고 있다.

제6권 「사회이론에 있어서의 가치」는 군나르 뮌달(제6회)의 저작 중에서 사회과학 방법론에 관한 것을 수록한 것이다. 이것은 주로 사실과 과학 및 가치판단의 유기적 관련에 관한 그의 사상과 이론을 담고 있다. 같은 해 뮌달과 함께 수상한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의 「자본과 순수이론」은 제7권에 실려 있다.

제8권은 찰링 C. 쿠프먼스(제7회)의 「경제과학의 현상 3제」와 시장경제체제의 옹호자이자 자유주의자인 밀튼 프리드먼(제8회)의 「자본주의와 자유」의 완역본이다. '국제무역 및 국제자본 이동이론에 대한 공헌'을 인정받아 제9회 경제학상을 수상한 베르틸 G. 올린과 제임스 E. 미드의 이론은 제9, 10권에 실렸다.

제11권은 경제학자로서보다는 컴퓨터 전문가, 심리학자, 정치학자로 더욱 알려진 허버트 A. 사이먼(제10회)의 「관리행위론」 등 경제, 심리, 관리와 관계된 그의 논문들을 묶었다. 제12권은 '후진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연구로 공동수상한 디어도 W. 술츠와 아더 루이스(제11회)의 「전통적 농업의 현대화」 「개발계획」이 실려 있다.

제13권은 제12,13회 수상자인 로렌스 R. 클라인의 「경제예측이론연구」와 제임스 토빈의 「경제학에 관한 고찰」이 번역되었는데 특히 계량경제학 이론에 입각한 경제예측이론으로서 예측만을 다룬 유일한 저서인 「경제예측이론 연구」는 클라인의 제자인尹錫範 교수가 직접 번역했다.

제14권은 '정부규제 이론에 대한 공로'로 수상한 조지 J. 스티글러(제14회)의 「시민과 국가」와 제라르 드브뢰의 「가치론」의 번역본이다.

제15권은 국민計定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리처드 스톤(제15회)의 「투입-산출과 국민계정」과 비통화주의의 대표로 불리는 프랑코 모딜리아니(제16회)의 주요 논문이, 역시 그

역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23명의

대표 論著를 수록한 이 選集은

수상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통해

현대경제학의 주류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또한

서양 경제이론을 통해

우리의 경제모형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 제자인 南相祐, 朴元巖 교수에 의해 번역되었다.

마지막권인 제16권은 정치학과 경제학의 접목을 이룬 공공선택이론으로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은 제임스 M. 부캐넌(제17회)의 저서 「자유와 한계」 「자유, 시장 그리고 국가」 및 논문이 실려 있다.

각권 5백여면이상의 분량에 한명 내지 두명의 수상자들의 논저를 실고 있는 이 선집은, 수상하게 된 주요이론 외에도 수상 전후에 발표된 논문까지도 포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번역 또한 경제학의 전문성을 고려, 분야별로 선별된 학자에 의해 행해졌다.

한국경제의 정립 모색 계기돼야

한국경제신문사가 이 방대한 작업에 착수한 것은 85년 말. 이듬해 85년도 수상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의 선집을 내놓은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4~5권씩을 출판한 끝에 올해 전 16권을 완간하게 된 것이다.

선집발간을 위해 한국경제신문사는 각국의 출판권자 및 수상자와 직접 출판계약을 맺었는데, 현재 70~80%의 서적에 로열티가 지불되고 있다고 편집실무를 맡았던 정용재씨(출판국 부국장)는 말한다. 또한 이 작업이 세계 최초라는 의미에서 스웨덴 한림원에서는 사전자료를 제공했으며, 부캐넌 등 몇몇 수상자들은 직접 한국어판 서문을 보내오기도 했다.

이번 완간은 노벨경제학의 흐름을 통해 20세기 현대경제학의 주류를 살펴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수상자들의 경제이론의 흐름

도 엿볼 수 있게 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1987년 이후 수상자들의 저작도 계속 발간할 예정인데, 이 선집은 '서양 경제이론의 모델분석을 통해 우리경제학을 정립한다'는 본래의 출판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경제사상을 서양의 이론적 모델에 적용하여 우리의 모델을 만드는 데 이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노벨경제학상저작선집」 전 16권의 목록이다.

- ① 動態經濟學의 제문제(랑나르 프리시 / 鄭雲燦 역) · 經濟政策이론에 관하여(얀 틸베르헨 / 邊衡尹 역)
- ② 經濟分析의 기초(폴 A. 새뮤얼슨 / 李道星 역)
- ③ 近代經濟성장론(사이먼 S. 쿠즈네츠 / 朴昇 · 盧永起 · 安國臣 · 洪起澤 공역)
- ④ 價値와 資本(존 R. 히스 / 閔庚輝 역)
- ⑤ 社會의 선택과 個人의 價値(케네드 J. 애로우 / 尹暢皓 역) · 美國경제의 構造(와실리 W. 레온티에프 / 宋熙宗 역)
- ⑥ 社會理論에 있어서의 價値(군나르 뮌달 / 趙淳 譯)
- ⑦ 資本의 理論(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 / 朴宇熙 譯)
- ⑧ 經濟科學의 현상 3題(찰링 C. 쿠프먼스 / 鄭基俊 譯) · 資本主義와 自由(밀튼 프리드먼 / 柳東吉 譯)
- ⑨ 地域間 및 國家間 무역(베르틸 G. 올린 / 金迪教 譯)
- ⑩ 國際收支論(제임스 E. 미드 / 朴振根 譯)
- ⑪ 허버트 A. 사이먼 選集(허버트 A. 사이먼 / 尹錫喆 譯)
- ⑫ 傳統的 農業의 現代化(디어도 W. 술츠 / 金洙權 譯) · 開發計劃(아더 루이스 / 裴茂基 譯)
- ⑬ 經濟豫測理論연구(로렌스 R. 클라인 / 尹錫範 譯) · 經濟學에 관한 考察 제1~3권(제임스 토빈 / 金秉柱 譯)
- ⑭ 市民과 國家(조지 J. 스티글러 / 曹尤鉉 譯) · 價値論(제라르 드브뢰 / 李承勳 譯)
- ⑮ 投入-產出量과 國民計定(리처드 스톤 / 姜光夏 譯) · 프랑코 모딜리아니 選集(프랑코 모딜리아니 / 南相祐 · 朴元巖 公 譯)
- ⑯ 公共選擇 및 財政理論(제임스 M. 부캐넌 / 崔洸 譯)

—민옥경 기자